송봉준 구성원변호사

BARUN LAW
법무법인(유한) 바른



TEL.
02-3479-2398

MAIL.
bongjun.song@barunlaw.com

구성원 소개

송봉준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각종 민·형사소송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800억 원대 상속재산 분쟁에서 '재판으로 갈 경우 양자 모두 득보다 실이 크다'는 논리를 개발해 합리적으로 양쪽을 설득해 소송 없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끝낸 사례는 유명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사건에서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65%로 인정한 판결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의 인정비율(50%)을 크게 넘어선 것입니다. 속칭 '기획부동산' 판매업자를 대리해 사기죄 및 무등록 다단계판매업(판매액 합계 1,750억 원)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들에게 전부무죄 판단을 받아냈는데, 이는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업자와 그렇지 않은 업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송봉준 변호사는 2019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의 자문변호사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는 이혼전문변호사 자격 인증을 받았습니다.

학력

1989	마산중앙고등학교
199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경력

1996 ~ 2003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당진군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4 ~ 2005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파리지방법원 사법관 시보
2005 ~ 200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공보관)
2007 ~ 2009	대법원 조사심의관
2009 ~ 2010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9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 위촉
2020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자격취득
2021	대한건축사협회 수석자문변호사 위촉
2010 ~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최근업무사례

부부 공동임차인 명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남편이 출연한 상태에서, 아내 명의 1/2 지분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아내의 재산임을 인정받은 사례

[가사/상속]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 및 나머지 상속인 몫의 취득세를 대납한 후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

[개인자산관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약 140억 원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망인의 진의에 불합치하는 사인증여계약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원고청구를 기각시켜 전부 승소한 사례

[가사] 17살 연하 아내가 결혼생활 재미없다고 제기한 이혼청구에서 남편 대리해 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65% 인정한 사례

[상속증여] 800억원대 상속재산 분쟁을 소송 없이 협의로 이끈 사례

[형사] 속칭 '기획부동산' 사기죄 및 무등록 다단계판매업(판매액 합계 1750억원)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지식재산] 상표권을 양도하면서 환매약정과 동시에 Sale & Lease back 조항까지 두어 매도인이 양도 후에도 상표권을 계속 사용하다가 사용기한이 만료되었는데, 매도인은 이때까지 지급한 사

형사

- 엘아이지 넥스원 임직원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500억 원 상당의 사기, 97억 원 상당의 재산국외도피) 사건(무죄 판결)
-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는 유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을 2심에서부터 변호하여 구글타임라인 등 첨단 증거기법을 활용하여 무죄판결을 받음
- 1심에서 79억원의 사기와 21억원의 횡령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대부업자를 제 2심에서부터 변호하여 전부 무죄판결을 받음
- 뇌물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수사의 단초가 된 휴대폰에서 추출한 문자메시지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배척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민사

- SBS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사법사상 최고 위자료 3억 원 배상판결 승소 확정, 현재까지 깨지지 않은 최고 위자료 액수 기록임)
- 경찰관들의 불공정 수사 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4천만원 승소
- '을'의 입장인 KT의 납품업체가 '갑'의 입장인 KT에 대해 제기한 부당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5억 원을 배상하는 조정
- ㈜하이닉스반도체의 현대증권에 대한 구상금 청구 (3,000억 원대의 구상금 사건에서 승소 확정)

행정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사건
- 대기업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및 가산세 270억원 부과처분 전액 취소시켜 확정
- 서울시가 행한 도시계획결정을 실효를 막기 위한 형식적인 도시계획임을 입증하여 취소시킴

상속

- 상속재산 총 600억원 상당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70억원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배척시킴
- 총 800억원에 이르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소송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을 설득하고 협의하여, 원만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끌어냄

이혼

- 혼인기간 9년 동안 순전히 전업주부로서 가사에만 전념하였던 아내를 대리하여 총 27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획득(기존 보유분 11억원+추가 분할금 16억원)
-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2심에서 수행하여 의뢰인의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승소
- 1심에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당한 의뢰인을 2심에서부터 대리하여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 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부부임을 입증하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청구를 인용하여 승소
- 1심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안의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을 결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쌍방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사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같이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파탄주의적 성향에 따른 이혼 청구 인용의 위험을 배척하고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비 사건에서 아내를 대리하였는바, ①아내는 혼인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이 남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였고, 아내 명의 부동산마저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인 사안, 즉 일응은 남편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모든 재산을 통틀어 전업주부이었던 아내의 기여도를 이례적으로 높게 65%(남편 35%)로 인정받았고, ②동시에 두 명의 자녀를 아내와 남편이 각각 1명씩 양육하기로 하면서도 상호 양육비지급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급여가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추가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이끌어낸 사례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자격취득

용료가 이미 매도대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자 및 원금의 합계를 넘는다고 주장하며 무조건으로 상표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Sale & Lease back 조항과 환매약정이 결합된 경우 자금조달적 성격을 띄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가사]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내를 대리하였는바, ①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반환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이런 청구는 민사청구로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사유를 내세워 기각시키고, ②아파트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취득시 담보대출금까지 포함하면 남편이 더 많은 대금을 부담하였지만, 담보대출금을 받기까지는 아내가 더 많이 부담하였음을 주장하여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매수대금만을 기초로 하여 아내의 기여도가 더 높다는 판단을 받아낸 사례

[가사]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1심에서 인용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남편과 아내의 성(젠더, gender)를 대치하여 패러디 방식으로 변론하고 새로운 추가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1심을 취소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형사] 새로 추가되었지만 잘 활용하지 않아 사문화되다시피 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을 적용시켜 형 면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버닝썬 클럽의 공동대표이사로부터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금품 수수했다는 혐의

[병원영업권] 3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1인이 탈퇴(해지)한 후 정산금을 청구하여 상당한 액수의 영업권을 인정받은 사안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들의 형사수석부장에 대한 보고가 직무상의 정당한 행위임을 밝혀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

[가사]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 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부부관계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대리해 승소

[이혼]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재산분할사건을 2심에서 수임해 의뢰인의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일부승소

[형사] "검사에 의해 조작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전 00시장, 20억원 뇌물 약속 및 2억3천만원 뇌물사건 무죄 이끌어내

[형사] "특가법상 횡령, 배임 있었더라도 '합리적 경영판단'이면 처벌 못한다" 낫소(Nassau) 전 대표이사 000사장에 대한 횡령, 배임사건 무죄 이끌어

주요업무분야

이혼/상속 소송

고소고발·수사 대응

기업형사
건축행정
건설소송